

월화 채널 고정 예약!

SBS 월화 드라마

여우각시별

동시간대 2049시청률
1위로 산뜻하게 출발

10월 1일(월) 첫 방송된 새 월화드라마 <여우각시별>(극본: 강은경, 연출: 신우철)이 1회 3.0%, 2회 3.5%(닐슨 코리아/수도권)의 2049시청률을 기록하며 동시간대 지상파 1위로 산뜻하게 출발했다. KBS2 <러블리 호러블리>는 1.3%, 1.6%, 같은 날 시작한 MBC <배드파파>는 1.4%, 1.7%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여우각시별>은 비밀을 가진 의문의 신입 이수연(이제훈 분)과 애뜻한 사연을 가진 사고뭉치 1년 차 한여름(채수빈 분)이 인천공항 내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서로의 결핍과 상처를 보듬는 휴먼 멜로다. 스타 작가와 스타 감독의 만남으로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으며 2018년 하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꼽혀온 작품이다.

강은경 작가는 <제빵왕 김탁구>, <구가의 서>, <낭만닥터 김사부>, <가족끼리 왜 이래>를 집필하며 대한민국 최고 작가의 반열에 올랐고, 신우철 감독은 <파리의 연인>, <시크릿 가든>, <신사의 품격>을 연출하며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어 왔다. 2013년 <구가의 서>에서 이미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던 두 사람은 <여우각시별>에서 숨 돌릴 새 없이 휘몰아치는 전개와 빼어난 영상미로 올가을 월화극은 <여우각시별>로 고정될 것임을 알렸다. 이제훈과 채수빈의 조합도 합격점을 받았다.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최강 배달꾼> 등을 통해 라이징 스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채수빈은 넓은 공항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의욕은 넘치나 아직은 설익어서 공항 내 '폭탄 of the 폭탄'으로 전략한 한여름 역을 백 퍼센트 소화해냈다. 영화 <건축학개론>, 드라마 <시그널> 등을 통해 여심 스틸러로 떠오른 이제훈은 카이스트 졸업에 입사 수석의 화려한 이력을 지녔지만 스스로 아웃사이더가 되기를 선택한 이수연 역을 맡아, 한여름의 사수로서 위기 때마다 그녀를 구해주며 다시 한 번 여심을 강탈할 예정이다.

또 이동건은 공항공사의 명실상부한 젊은 실세, 운영기획팀장 서인우 역을 맡아 이수연과 어떤 사연으로 엮여 있는지 궁금증을 주고 있다. 김지수는 위기 앞에 당당하고 고객 앞에 나이스한, 공항 공식 '워커홀릭' 여객서비스팀장 양서군 역을 맡아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제작진은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갖는 곳이자, 만남과 헤어짐, 기쁨과 슬픔 등 삶의 희로애락이 담긴 특별한 공간 '공항'을 배경으로 매회 생동감 있는 스토리가 펼쳐진다"며, "이수연-한여름의 운명적인 사랑과 함께 공항 내부의 다양한 이야기가 화수분처럼 쏟아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제훈, 채수빈, 이동건, 김지수를 비롯해 김경남, 이수경, 로운, 안상우, 장현성, 이성욱, 정재성, 홍지민, 김원혜, 박혁권, 최원영 등 실력파 배우들이 총출동하는 <여우각시별>은 매주 월, 화 밤 10시에 방송된다.



SBS 드라마스페셜

흉부외과

심장을 훔친 의사들

화제 뿌리며 순항 중

<피고인>의 작가, 감독 재회 + 배우 열연으로 기대감 증폭



드라마스페셜 <흉부외과: 심장을 훔친 의사들>(이하 <흉부외과>)이 9월 27일(목) 첫 방송된 이후 매회 강렬한 스토리와 빠른 전개, 충격 엔딩으로 화제를 뿌리며 '시간순삭 드라마'라는 평을 얻고 있다.

<흉부외과>는 '두 개의 목숨, 단 하나의 심장', 의사로서의 사명과 개인으로서의 사연이 충돌하는 딜레마 상황에 놓인 절박한 흉부외과 의사들의 이야기로, 2017년 시청률과 화제성을 다잡고 그해 <SBS 연기대상>에서 '올해의 작품상'을 거머쥔 <피고인>의 조영광 감독과 최수진, 최창환 작가가 다시 뭉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캐릭터에 완벽하게 녹아든 엄기

준, 고수, 서지혜의 열연으로 작가-감독-배우의 완벽한 삼위 일체를 이루며 <피고인>의 영광을 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수가 맡은 박태수 역은 지방의대 출신이라는 한계 때문에 태산병원에서 남들 1~2년 하는 펠로우를 4년째 하고 있는 '롱 펠로우'다.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홀어머니 때문에 태산병원을 떠나지도 못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엄기준이 맡은 최석찬 역은 역시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지만 최고의 실력을 갖춘 흉부외과 교수다. 그에게도 태산병원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서지혜는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태어나 운명처럼 흉부외과 서전이

된 윤수연 역을 맡았다.

여기에 윤수연의 아버지이자 태산의료원 이사장 윤현목 역의 남경읍과 그의 동생이자 태산의료원 병원장 윤현일 역의 정보석은 병원 운영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대립각을 형성하며 또 다른 재미를 안겨준다. 그 외에도 안내상, 이덕희, 조재윤, 김예원, 정희태, 장소연 등 명품 조연들의 구멍 없는 연기는 극의 재미를 배가시키고 있다.

<흉부외과>는 뻘한 '정치'와 '멜로'가 없는 '진짜 흉부외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표방한다.

정통 의학드라마로서의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의료진으로부터 자문은 물론이고 배우들 역시 1:1 매칭 지도를 받고 수술 참관 및 실습을 하는 등 드라마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편, 고수, 엄기준, 서지혜, 김예원, 박경혜, 루현 등의 연기자와 최수진, 최창환 작가, SBS 제작진은 제작발표회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9월 28일(금) 소외계층 심장 수술을 위해 사단법인 라파엘인터내셔널에 2천만 원을 기부하여 훈훈함을 자아냈다. 라파엘인터내셔널은 해외 의료 빈민국의 의료 자립화를 지원하는 의료봉사단체로, <흉부외과>의 자문의사인 김웅한 교수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의사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생명의 가치와 사회 정의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흉부외과>는 매주 수, 목 밤 10시에 방송된다.

SBS 특별기획

미스 마

복수의 여신

10월 6일(토) 첫 방송

김윤진, 전무후무한 강렬한 여주 캐릭터로 19년 만에 안방 복귀



김윤진의 19년만의 안방극장 복귀작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SBS 특별기획 <미스 마: 복수의 여신>(극본: 박진우, 연출: 민연홍)이 10월 6일(토) 밤 9시 5분에 첫 방송된다.

<미스 마>는 추리 소설의 여왕 애거서 크리스티의 작품 중 여성 탐정 '미스 마플'의 이야기만을 모아 국내 최초로 드라마화하는 작품으로, 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절망에 빠졌던 한 여자가 딸을 죽인 진범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뛰어난 추리력으로 주변인들의 사건까지 해결하는 이야기이다. 주인공 '미스 마'를 맡은 김윤진은 할리우드 드라마 <로스트>, <미스트리스> 등에서 다진 내공으로 냉소적이면서도 비밀스러운 미스 마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스 마를 악착같이 쫓는 한태규 형사 역은 정웅인이 맡았

다. 한태규는 미스 마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딸을 죽인 범인으로 미스 마를 검거한 형사이다. 자신의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깨닫고 감옥으로 그녀를 찾아가지만 미스 마는 이미 탈옥한 상태. 한태규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미스 마를 뒤쫓는다.

미스 마를 돕는 사교성 좋으면서도 비밀스러운 인물 서은지 역은 고성희가 맡았다. 서은지는 동생을 찾기 위해 미스 마의 복수 행보에 끼어드는 인물로, 미스 마와 복수 콤비를 이룬다. 조직폭력배 출신인 미스 마의 조력자 고말구 역은 최광제가 맡았다. 고말구는 미스 마가 누명을 벗겨주면서 그녀의 호위무사를 자처한다. 명계남은 고말구가 섬기는 조직폭력배 일구파의 보스 장일구로 분해, 최광제와 완벽 케미를 자랑한다. 이밖에 미스 마의 남편 장철민 역은 송영규가 맡

았고, 명석하면서도 배포와 씩씩이가 남다른 여 검사 양미희 역은 김영아가 맡았다.

미스 마가 진실을 밝혀 가는 과정에서 머물게 되는 무지개 마을의 개성 넘치는 주민들도 이 드라마의 핵심 포인트이다. 파출소장 조창길 역의 성지루, 박 여사 역의 문희경, 오 회장 역의 황석정, 양 선생 역의 윤송아, 홍 선생 역의 유지수 등 중견급 연기자들의 노련한 연기력은 드라마에 탄탄한 안정감을 준다.

제작진은 "〈미스 마〉는 인간 본성을 돌아보게 만드는 휴머니즘 가득한 추리극"이라고 소개하며, "9년 전 이미 종결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며 복수에 다가서는 미스 마의 여정을 통해 올가을 안방극장에 짜릿한 통쾌함과 긴장감을 동시에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SBS, 3분기에도 2049 시청률 1위 - 채널 파워 입증!

3분기 프라임타임 2049 시청률 순위

순위	채널	시청률
1	SBS	2.84
2	KBS2	2.15
3	tvN	1.98
4	MBC	1.74
5	JTBC	1.53
6	KBS1	1.23
7	OCN	0.50
8	MBN	0.40
9	채널A	0.37
10	TV조선	0.29

채널 별 TOP 20에 포함된 프로그램 개수

채널	SBS	tvN	MBC	KBS2
3분기	7	6	4	3

3분기 프로그램별 2049 시청률 순위(수도권)

순위	채널	프로그램(그룹)	시청률
1	KBS2	주말 드라마(같이 살래요)	8.89
2	SBS	추석 특선 대작(신과 함께)	8.29
3		미운 우리 새끼 다시 쓰는 육아일기	7.96
4	tvN	미스터 션사인<본>	7.94
5	MBC	나 혼자 산다	7.46
6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본>	6.24
7		리얼막장모험극 신서유기5 귀신과 함께<본>	5.58
8	SBS	동거동락 인생과외 집사부일체	5.22
9	KBS2	주말 드라마(하나뿐인 내편)	5.10
10	MBC	추석에도 나 혼자 산다	4.81
11	tvN	무법 변호사<본>	4.80
12	MBC	전자적 참견시점	4.61
13	tvN	수목 드라마(아는 와이프<본>)	4.58
14	SBS	월화 드라마(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4.55
15	tvN	꽃보다 할배 리턴즈<본>	4.50
16	SBS	추석 특선 대작(청년경찰)	4.40
17		정글의 법칙 IN 사바	4.21
18	KBS2	해피선데이	4.20
19	MBC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4.12
20	SBS	정글의 법칙 IN 라스트 인도양	4.07

SBS가 3분기 프라임타임 2049 시청률에서 1위를 차지하며 화제성과 채널 파워를 입증했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SBS는 3분기 평균 2.84%(수도권 기준)로, 2분기 2.73%보다 상승세를 보이며 채널 1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SBS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3연속 1위를 달리고 있다. SBS에 이어 2위는 KBS2(2.15%), 3위 tvN(1.98%), 4위 MBC(1.74%), 5위는 JTBC(1.53%)가 차지했다.

3분기 SBS가 2049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데에는 기존 예능, 드라마의 선전과 함께 추석 특수가 한몫했다. 추석 연휴 기간 방송한 <신과 함께-죄와 벌>, <청년경찰> SBS 특선 영화 2편이 3분기 2049 TOP 20에 모두 포함됐다.

이외에도 3분기 프로그램별 2049 TOP 20을 보면, SBS는 <미운 우리 새끼>, <집사부일체>, <정글의 법칙 in 사바>, <정글의 법칙 in 라스트 인도양> 예능 4개,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드라마 1개 등 총 7개가 포함돼 가장 많은 수의 프로그램이 20위권 안에 진입했다.

이어 tvN이 <미스터 션사인> 등 6개, MBC가 <나 혼자 산다> 등 4개, KBS2가 <같이 살래요> 등 3개를 TOP 20위 안에 진입시켰다.



막다른 골목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으로 - 의정부지국

- 보도국 시민사회부 서쌍교 부장

의정부는 조선시대에 3정승이 모여 국정을 논의하던 최고 회의기관을 말합니다. 의정부시는 역사 속의 국가기관이 현대의 도시 명으로 되살아난 유일한 사례입니다. 조선 초 왕자의 난 이후 태조 이성계가 함흥에서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금의 의정부시 호원동 일대에 머물게 되자 조정 대신들이 찾아와 정사를 논의하고 태상왕의 윤허를 받았다는 데서 유래합니다. 도시 이름에서 고전적인 향기가 물씬 풍깁니다. 실제로 의정부와 양주 일대에는 왕릉이나 관아, 대규모 사찰 터 같은 조선, 고려시대의 역사 유적이 즐비합니다.

의정부지국은 수도권의 다른 지국과 같이 1992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개국 당시 의정부 역 앞에 자리 잡았다가 교통난이 가중되면서 1998년 신흥로 서영빌딩으로 옮겨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의정부지국에는 올 초 안식년 휴가에 들어간 송호금 기자를 비롯해 편상욱, 김희남, 김우식, 이홍갑, 강선우, 장세만, 한지연, 임광기 기자가 차례로 거쳐 갔습니다. 이들이 남긴 크고 작은 족적은 의정부지국은 물론 SBS의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의정부지국에는 카메라기자 인필성 차장과 오디오 이지웅 씨, 운전기사 최현석 씨가 저와 함께 팀을 이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필성 씨는 20년 넘게 의정부지국을 지켜 온 베테랑, 박현석 씨는 경기북부 지역의 도로망을 손금 보듯 꿰뚫고 있는 토박이 만능 일꾼입니다. 이지웅 씨는 한창 업무를 익히고 있는 입사 3개월 차 신참, 저도 지난 2월 27일에 발령받은 초짜 지국장입니다.

의정부지국은 경기북부 지역과 관련한 뉴스제작과 정보 수집을 총괄합니다. 경기 북부에는 의정부를 비롯해 고양, 남양주, 파주, 양주, 구리, 동두천, 포천, 연천, 가평까지 10개 시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이면

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연천군 끝까지, 서울에서 가평군 끝까지, 서울에서 포천시 끝까지 2시간 안에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최근 몇 년 새 도로 사정이 많이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보다 광주보다 먼 곳이 경기북부입니다.

경기북부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해있습니다. 군사분계선은 파주시 장단면 정동리부터 판문점을 지나 연천군 신서면 도밀리까지 86km에 이릅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이뤄진 후 경기북부는 오갈 데 없는 막다른 골목동네로 전락했습니다. 65년 넘도록 투자는 끊겼고 개발은 중단됐습니다. 그 자리에는 군부대와 군사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연천군 면적의 98%, 파주시 90%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9곳의 대규모 사격장, 군 비행장, 탄약고, 미사일 기지 등이 들어선 포천시의 공시지가는 경기도 평균의 16%에 불과합니다. 연천군에서는 개인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도 군부대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국가 안보가 최우선인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6.13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경기북부는 단시간에 가장 주목받는 곳이 됐습니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교류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는 파주시 한 민통선 마을의 땅 값이 평당 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매물로 나온 땅이 없다고 합니다. 요즘 경기북부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을 상징하는 DMZ 관련 문제, 남북교류, 평화경제 특구, 미군 공여지 개발,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사격장 주변 갈등 등이 요즘 의정부지국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취재 포인트입니다.

경기 북부에는 350만 명에 이르는 주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이 지역에 쏟아지는 특별한 관심도 그런 연장선에서 이해됩니다. 지역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SBS 의정부지국의 역할과 책임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의 큰 물줄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국 식구들은 하루하루 분위기를 다잡고 있습니다. 의정부지국에 대한 SBS 가족들의 특별한 관심과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의정부지국의 명칭을 경기북부 전체를 아우르는 경기북부지국, 혹은 경기북부 취재센터로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지웅, 인필성 차장, 최현석, 서쌍교 부장

SBS 공식 커뮤니케이션 파트너 '스브스 덕PD' 발대식



9월 20일(목) 목동 SBS방송센터 13층 SBS홀에서 '스브스 덕PD' 발대식이 개최됐다. '스브스 덕PD'는 자신의 블로그, 또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크리에이터로 이뤄진 SBS의 공

식 커뮤니케이션 파트너 그룹이다. 이들은 약 5개월여의 활동 기간 동안 SBS의 드라마, 예능, 교양 프로그램을 '덕후'의 시점으로 바라보고 이를 응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바이

럴에 나서게 된다.

조정식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발대식에는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 선발된 20명의 '스브스 덕PD'가 참석했다. 홍보팀 이원구 팀장은 환영사를 통해 "스브스 덕PD'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일상의 기쁨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미의 SBS 슬로건 '함께 만드는 기쁨'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며 함께 성장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자기 소개에 나선 스브스 덕PD는 "제가 받은 합격 문자 중에 '스브스 덕PD' 합격 문자가 제일 좋았다", "SBS에서 인재를 뽑으신만큼 SBS의 아들이 되겠다"는 등의 재기발랄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스브스 덕PD'는 단순한 서포터즈가 아닌 SBS의 커뮤니케이션 파트너로서 제작발표회와 촬영 현장을 취재할 수 있으며 월별 활동비, VOD 이용권, 수료증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우수 활동자에게는 별도의 시상도 이뤄진다.

<스브스뉴스> 예능형 경제 콘텐츠 <돈워리스크> 론칭



2030 사회 초년생을 타깃으로 한 <스브스뉴스>의 경제 콘텐츠 <돈워리스크-사회에선 알려주지 않는 경제 수업>(프로듀서: 하현중, 작가: 이상미)의 첫 에피소드가 지난 달 17일 첫 공개됐다. 첫 회에서는 더 이상 아낄 것도 없는 '월 이백 세대'들이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소비를 관리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풀어냈다. 실제 돈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SBS 김윤상 아나운서와 래퍼 댄딘이 학생으로 출연하고, 유튜브에서 경제 강의를 맡고 있는 재야 재테크 전문가 정현두 강사가 눈높이에 맞는 경제상식과 재테크팁을 소개하는 방식이다.

이 방송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일주일 만에 누적 조회수 20만을 넘기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돈워리스크>은 돈은 벌고 있으나, 200만 원 내외의 월급으로 버티며 살고 있는 '2말 3초'의 사회 초년생들, 이른바 '월 이백 세대'를 타깃으로 한 <스브스뉴스>의 모바일 전략 콘텐츠이다. 제작진은 경제 뉴스, 경제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2030 눈높이에 맞춘 경제 콘텐츠가 없다는 데 주목했다. <돈워리스크>은 앞으로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같이 진입장벽이 높은 주제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법, 포인트 활용법, 해외직구 등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소소한 주제들로 확실한 공감을 얻어낸다는 계획이다.

<돈워리스크>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SBS 뉴스 홈페이지 등 <스브스뉴스>의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공개된다.

SBS 플러스 방송 콘텐츠 x VR-커머스 체험존 오픈



SBS플러스는 방송 콘텐츠에 커머스-VR 기술을 결합한 VR 체험존 'On & Off'를 진행하고 있다.

9월 18일(화) 문을 연 SBS플러스 VR 체험존 'On & Off'는 <더 쇼>(The Show), <슈퍼모델 선발대회> 등 SBS 플러스 대표 방송 콘텐츠 속의 에피소

드들과 해당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커머스 상품들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형태의 VR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체험존 오픈은 SBS플러스의 콘텐츠를 활용, 기존 커머스 사업과 VR 기술을 접목하는 새로운 형식의 사업 전개의 일환이다.

그 첫 단계로 체험존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VR 콘텐츠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K-POP 가수들의 공연을 360도 VR 영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슈퍼모델들의 패션, 뷰티 노하우를 바로 옆에서 전해 듣는 것과 같이 생생하게 경험해 볼 수 있다.

체험존 관계자는 "세계 VR 콘텐츠 시장의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한류를 접목한 VR 콘텐츠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분야라 생각한다. 이번 체험존 설치를 계기로 방송 콘텐츠와 커머스 그리고 VR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본격적으로 시도해보겠다"고 말했다.

'On & Off'는 11월 말까지 진행되며 SBS미디어그룹 임직원 누구나 매주 화요일 SBS프리즘타워 1층에서 생생한 VR 콘텐츠의 현장을 즐길 수 있다.

<그알> '불법 동영상의 진실'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그것이 알고 싶다>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웹하드 불법 동영상의 진실'(연출: 김병길)이 9월 19일(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불법 동영상의 진실'은 디

지탈 성범죄 피해 영상물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웹하드에 유통되는 불법 동영상이 근절되지 않는 구조적인 이유를 파헤치고, 관련 기관의 감독과 수사 및 국회 입법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

SBS미연회 전시회 개최



SBS미연회(미술연구동호회/회장: 장철)가 4년간 다진 실력을 인사동 갤러리인사이트에서 사우들과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2015년 2월 창립한 미연회는 '나 자신도 모르는' 아티스트 자질을 고집어내는 창의적 심미안 계발에 목적을 두고 직장생활의 '소확행'으로 자리 잡았다. 회사 내 미술, 사진, 영상 등의 전문가를 강사로 모시고 딱딱한 페인팅이 아니라 일상에서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재료로 드로잉, 조각, 캘리그래피, 사진, 동영상 제작까지 미디어 아트를 아우르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10월 10일(수) 오후 6시 오프닝 행사는 SBS 색소폰 콰르텟의 연주로 시작하며 15일(월)까지 매일 오전 10시 반에서 오후 6시 반 사이에 관람이 가능하다. 6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며 판매 수익금은 'SBS 희망TV'에 기부된다.